테마칼럼 | 광대한 세상보기 | 예술로의 초대 | 광고판에 살다 | 정치·문화 세상

실험정신으로 고난 극복하다

정금희

"위인들이란 시련을 극복하고 과감한 실험 도전 정신으로 성공한 인물을 일컫는다. 어려운 처지라 해도 옳은 일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갖는다면 무엇이 됐든 결국 해낼 것이다."

경기 침체로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쉬고 있는 20대가 30만명이 넘었다는 보도를 접한다. 어려운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거나, 분노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를 저지르는 등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작동돼 계절은 이윽고 봄이다.

산천 곳곳에는 진달래, 개나리가 분홍빛, 노란빛을 발하며 만개해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다. 이 봄이란 계절은 우리에게 희망, 새 출발이란 단어를 연상시켜 무슨 일인가를 도전해 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때 경제난, 취업난 등 사회 환경적인 것만 탓하지 말고 실험정신에 입각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추진력으로 젊음을 발산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쩔까 싶다.

잘 알려져 있듯 미술사를 넘어 인류사에서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히 불굴의 도전 정신에 의해 만들어낸 뛰어난 발명품과 작품들은 더욱 돋보이는 그의 행적들이다. 다빈치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을 그린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이자, 그 시대가 낳은 천재적인 과학자, 공학자이다. 그는 1452년 꽃피는 봄날 4월15일에 태어났다. 다빈치는 사생아라 고급 관리가 될 수 없어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됐다. 자신의 능력을 후원해 줄 후원자를 찾아 많은 재능을 펼쳐 화가, 건축가, 조각가, 무기 설계사, 도로 설비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선보였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연을 관찰하여 아이디어를 얻어 끊임없이 실험·제작을 시도했다. 그는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도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결국 비상하는 새의 형상을 본떠 최초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었다. 본체가 무거워 비록 날지는 못해 실패로 돌아갔으나 몇 세기를 앞선 발상이었다. 그의 과학적 호기심은 끝이 없어 해부학과 식물학, 기하학, 물리학, 토목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수한 작업과 성과물을 낳았다.

다빈치는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됐던 인체를 해부한 후 데생으로 인체의 근육, 장기 등을 완벽하게 재현해 의학, 미술사에 경이로운 업적을 남겼다. 의학에서는 외과 수술하는데, 미술사에서는 완벽한 사실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공학자로서 수많은 실제 발명품과 발명 구상도들은 수백 년 후 등장하는 기술들을 예시하고 있어 최초이자 최고의 미래학자였다. 그는 그 당시 이미 과학과 예술의 뛰어난 조화, 광범위한 분야 간의 통합을 이뤄내고 있었다.

그가 살았던 67년 동안은 잦은 전쟁과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였고 그같은 환경은 그로 하여금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게 했다. 그는 '하루를 잘 보낸 후 잠자리에 들 때 흐뭇한 마음이 들듯이 인생을 보람차게 보내면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으리라'는 인생관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다빈치는 주어진 상황에 비관하지 않고 확고한 인생관을 몸소 실행했다.

그러나 한편 인류사를 통해 제2의 제3의 다빈치는 또다시 그리고 끊임없이 태어나 업적을 남긴 후 그들 역시 다빈치와 같이 영면에 들었다. 돌이켜보면 불과 한 세기의 삶도 되지 않지만 한 개인을 둘러싼 고난과 고통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인간의 위대함이란 결국 그것을 극복한데서 비롯됐다. 대부분 위인들이란 끝없는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과감한 실험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한 인물을 일컫는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경배하는 이유는 비단 결과물만이 아닌, 실천에 옮긴 그들의 삶 때문이어서일 것이다.

이는 마냥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된다. 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이를 구현하려는 노력과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을 미디어를 통해 종종 접한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잘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평탄한 삶은 결코 일평생 지속되지 않는다.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아무리 적어도 한번 이상은 좌절한다. 그러나 진정 마음을 비우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시련이 인생의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려운 처지라 해도 옳은 일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갖는다면 무엇이 됐든 결국 해낼 것이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U대회 유치, 실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광주 현지 실사가 9일 마무리됐다. 실사단은 이날 환송 조찬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3박4일간의 실사를 마치고 출국했다. 이번 실사결과는 FISU 집행위원회에 보고돼 오는 5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개최지 결정을 위한 최종투표에 반영된다.

이번 실사는 긍정적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사단은 경기장 시설과 숙박·문화 시설을 둘러보고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한다. 5명의 실사위원 가운데 지난해에도 광주를 방문한 위원이 4명임을 고려하면 '인사치레'일 수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만은 확실하다.

스테판 버그 단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실사기간 동안 대회유치위원회의 의지와 열정에 주목했다"면서 "광주가 유치에 실패했던 지난해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U대회를 유치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실사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사결과가 투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 외교전 등 여러 변수들이 작용한다. 지난해 광주가 실사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러시아 카잔에 고배를 마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도 탈의실과 기자실 등 일부 경기장의 부대시설이 미흡하다는 실사단의 지적사항을 꼼꼼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실사위원들의 '립서비스'에 도취되지 말라는 얘기다. 오는 5월23일 개최지 결정일까지 전방위 외교전과 함께 치밀한 득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U대회 유치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은행들 '몸사리기' 지나치다

은행들의 '몸 사리기'가 해도 너무한다. 정부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건설·조선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실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나 '말로만 대책'에 그치고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권의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몸 사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3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1·2차 건설 및 조선업 구조조정 대상 협력업체에 연 1.25%의 저리로 업체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된 금액은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32개 협력업체에 82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시중은행의 대출 실적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수 천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은행권의 몸사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약속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 역시 광주은행만 상품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감감무소식이다. CD 금리가 인하되면 예금금리는 재빠르게 내리면서 대출금리 인하는 뭉그적거리는 행태도 대표적인 은행들의 이기주의다.

물론 부도 위험이 큰 기업이나 연체 서민에게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이것 저것 다 빼버리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서민은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 소유가 아님에도 은행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은행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공공성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의 혈세로 은행지원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의 몸 사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말로만 그치는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금융 당국의 독려가 필요하다.

종교칼럼

고재경

십자가의 길(자기희생)은 승리의 길

오늘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2천여 년 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모든 성당들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주님수난예식이 거행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 ; 마르 8,34 ; 루가 9,23)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선 먼저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다.

사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자기희생)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결국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이다. 이처럼 자기희생은 결국은 승리로 끝을 장식하게 된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세 명의 나그네가 눈 쌓인 험준한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여관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 도망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돈을 훔쳐 달아난 사람의 뒤를 열심히 쫓아갔다.

정오를 넘길 즈음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자신들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목숨이 아주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일단 두 사람은 자신들의 돈을 되찾고 갈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발길을 뒤로 돌려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고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음씨 착한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혼자 눈 속을 헤치며 가버렸다.

뒤에 남은 두 사람은 힘이 빠져 눈 밭에 넘어져 가면서도 밤이 깊어질 무렵 드디어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두 사람을 남겨 놓고 앞서 떠난 한 친구가 그곳에 눈 속에 파묻혀 죽어있었다.

서로 의지해가며 산을 넘은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주고 받으면서 얼은 몸을 녹일 수 있었지만, 먼저 혼자 간 친구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 결국 얼어 죽었던 것이다.

무릇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코 헛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에로 넘어가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고,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삶의 원칙으로 존재하는 한 세상은 변화될 수 없다. 하지만 남을 용서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조그만 행위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맛나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법원 판사〉

기고

김명곤

황사철 건강 관리 신경써야

최근 봄철에 중국과 몽골의 내몽골고원과 황하강 상류지대의 건조지역으로부터 미세한 흙먼지가 강한 상층기류를 타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라든다. 속칭 황사라고 하는 이 미세먼지는 주로 4월과 5월초에 걸쳐 관측되고 있어 우리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근래에 중국의 산업화에 따라 중국 상공을 거쳐 날라 오는 동안에 많은 위해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과거의 황사에 비해 더욱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한 흙먼지는 그 크기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만 특히 호흡기계통과 안과부분에 많은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에서 황사관련 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비염과 안결막염이 급증하고 안구이물감과 알레르기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콘택트렌즈 착용시 불편감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지염과 천식, 감기, 아토피와 피부염 등도 황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발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의 황사 예보가 있을 때에는 건강상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외부 활동을 가능한한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 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외출한 경우에는 옷 등을 잘 털고 귀가 후에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비누로 잘 씻어 주어야 한다. 또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며 눈이 가려운 경우에도 손등으로 비비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감기나 천식 등의 질환이 있는 노약자는 방진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답답해도 입보다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다.

또한 가정이나 식품류 취급업소에서는 채소나 과일 등을 충분히 잘 씻어 조리하거나 보관해야 하고 야적된 농수산물과 가축사료 등은 비닐 등으로 씌워야 한다. 아울러 황사 발생 뒤에는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청소와 함께 황사에 노출되었던 물품 등은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 후 사용토록 하고 식당 등에서는 평소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황사는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황사가 발생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우선이므로 이런 시기에는 황사관련 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광주시 등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시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황사로 인한 폐해를 줄이면서 건강한 생활에 활력을 더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광주시 보건위생과장〉

바다 오염시키는 낚시 '납봉돌' 사용 금지 시켜야

베토벤이 사망한 지 172년 만에 머리카락을 검사하여 조사를 해봤더니 그의 사망원인이 납중독이라고 발표가 돼있었다. 베토벤은 평소에 도나우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또한,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포도주 잔과 수도관을 납으로 만들어 사용하여 납중독에 의한 질병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납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동해에서는 곳곳이 백화현상으로 죽고 있다고 한다. 당장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커다란 제약 없이 바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납봉돌이 바다에 수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납은 그 특유의 독성 때문에 납봉돌이 버려진 바다 바닥주변엔 해초조차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낚시에 필요한 봉돌을 납으로 제조하는 이유는 용융점이 낮아 쉽게 주조할 수 있고, 경도(硬度)가 낮아 자르거나 깎아내기가 쉬워 무게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은 인체에 아주 해로운 중금속으로서 환경오염에 큰 몫을 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납봉돌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바다엔 많은 낚시꾼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납봉을 사용하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노은영·전남 목포시 석현동

예식장에 영유아 위한 '놀이방' 의무화 했으면

며칠 전 결혼식에 참석 했다가 난감한 상황을 목격했다.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하객석에서 자그마한 공이 입장중인 신부 앞으로 굴러나왔다. 그 공을 줍겠다고 4살 정도 먹은 어린 남자 아이가 튀어나왔고 입장하는 신부 발 아래로 넘어지면서 신부가 그 꼬마를 피하려다가 그만 꼬마에 발이 걸려 함께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결혼식장은 다른 그 어떤 행사장보다도 가족단위의 움직임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예식장에서는 번갯불에 콩 볶듯 예식을 마치고 내보내면서 돈 벌기만 바쁘지 이 철없는 꼬마 손님들이 정작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 놀이방 하나 변변히 갖춰놓고 영업하는 데가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니 결혼식장은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런 꼬마 손님들이 식장 내에서 문란하게 행동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無等鼓

똥파리

어릴 적 개구진 친구들 사이에서 불린 별명 중 똥파리는 꼭 한 명씩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사회에서 똥파리는 천대와 멸시의 상징이었지만 그들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득하고 유들유들한 뻔뻔함이었다.

그 똥파리가 화려하게 부활을 할 조짐이다. 다름이 아닌 양익준 이라는 독립영화 감독이 만든 '똥파리'를 통해서다. 양 감독이 각본, 주연까지 1인3역을 맡은 영화 '똥파리'는 '가족'이라는 복잡미묘한 화두를 똥파리처럼 진득하게 혹은 날렵하게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깡패 상훈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어버린 상처를 가슴깊이 안고 살지만 대물림된 폭력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은 비슷한 아픔을 지닌 여고생 연희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연희 역시 분열증을 앓는 아버지, 반항적인 남동생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간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핏줄의 지독함과 폭력의 무자비함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상처를 치유하거나 억지로 감싸 안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난무하는 욕과 피 속에서 따뜻함과 애틋함이 묻어나온다. 영화 똥파리는 귀찮기만 한 존재, 내 곁에 오지 말았으면 하는 존재, 즉 외면하고 싶은 현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움과 연민의 시선으로 감싸안고 있다.

어느 순간, 관객들은 멀리하고 싶은 상황 속으로 몰입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은 영화이지만 배우들의 열연으로 반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

이 영화에 대한 박수와 환호는 해외에서 먼저 터졌다. 로테르담, 도빌, 피렌체 등 숱한 해외영화제가 '똥파리'에 앞다투어 상을 안겼다.

국내 극장가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16일 개봉을 하는데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50여 개관에 걸린다. '워낭소리'의 성공을 이을 태세다. 바야흐로 독립영화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듯하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